

봄이 이만큼 왔다고 느끼는 순간 봄날은 간다

6 삼척 신흥사(新興寺)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풍경소리조차 없었다. 산사의 풍경소리를 녹음하러 왔던 라디오 PD 은수와 녹음기사 상우는 풍경소리를 녹음할 수 없게 되자 산사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새벽녘, 풍경이 울리기 시작한다. 풍경소리에 눈을 뜬 은수가 문을 열어보니 소리 없이 눈송이가 날리고 대웅전 앞에는 상우가 커다란 마이크를 세워놓고 녹음을 하고 있다. 은수는 땀들 옆에 앉은 상우 곁에 조용히 다가갔다. 은수와 상우는 나란히 앉아 눈송이를 따라 날리는 풍경소리를 듣는다. 사랑의 테마가 흐른다. 2001년 개봉됐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은수(이영애 분)와 상우(유지태 분)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신흥사 대웅전 앞에서.

신흥사는 신라 말 범일 스님이 838년(민애왕 1)에 동해시 지흥동에 지은 지흥사(池興寺)가 시작이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던 지흥사는 1674년(현종 15)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광운사(廣雲寺)와 운흥사(雲興寺)로 불리다가 1770년(영조 46)에 절이 모두 불에 탔다. 1821년(순조 21)에 삼척부사 이현규가 시주하여 중창하고 신흥사가 됐다.

얼마 전 남쪽에 갔을 땐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으나 신흥사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늙은 죽담장 뒤로 홍매화 그늘이 겨우 부풀어 있을 뿐이다. 바람이 대숲을 건너왔다. 파도처럼 밀려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대숲의 바람

소리가 마당으로 밀려왔다 밀려갈 때마다 풍경이 울었다. 풍경소리가 멈추면 산새들이 울었다. 숲은 봄을 품고 있었다.

은수와 상우는 어느 봄날 이별을 한다. 한 사람은 이별을 말하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선다. 대웅전 주너 끝에서 풍경이 울었다. 은수와 상우가 나란히 풍경소리를 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대숲의 바람소리가 잔잔해지고 풍경소리가 멈추자 숲을 나온 산새 한 마리가 삼삼각으로 날아들었다. 삼삼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을까. 산새는 닫힌 문살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산신께 할 말이 있었을까. 나만존자를 만나고 싶었을까. 마당으로 대숲소리가 다시 밀려오고 삼삼각의 풍경이 울었다. 문살에 매달렸던 산새는 풍경소리 입에 물고 숲으로 돌아갔다.

머칠 후면 홍매화 그늘도 촘촘해지고, 신흥사에도 완연한 봄이 올 것이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봄이 오고 있는 신흥사에 가 볼 일이다. 대웅전 앞에 앉아 풍경소리를 들어볼 일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이 시작됐다면 봄이 완연한 신흥사에 가 볼 일이다. 가는 봄날의 뒷모습을 봐 둘 일이다. 봄이 이만큼 왔다고 느낄 때 봄날은 가듯이, 사랑이 이만큼 왔다고 느낄 때 사랑이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7



순례행은 정신적 탈출구

호넨의 지은원, 예사이의 건인사, 신란의 본원사, 도켄의 영평사, 니치렌의 구원사, 잇텐의 청정광사 등 종파불교의 사찰들은 중세에까지 독립된 사찰들로 기능했다. 17세기 초반에는 토크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 막부의 성립과 함께 사찰의 통제적인 본말사 제도의 성립으로 인해 수많은 말사를 거느린 대본산으로서 신도들의 신앙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성지와 순례는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불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애환사린 민중의 신앙을 통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교가 유입된 후, 고대의 순례는 수도와 가까운 영장 사찰을 중심으로 왕족과 귀족들이 순례에 나서며, 중세 이후에는 불교의 토착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순례가 정착된 것이다.

영장사찰의 신앙도 불보살을 참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관음신앙이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혼슈와 큐슈, 시코쿠 일대에 걸쳐있는 관음 영장사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순례의 목적은 현재의 이익과 사후의 안

례는 흥법대사가 고야산에서 열반에 들지 않고 여전히 입정 상태로 생존하신다는 유신입정설(留身入定說)에 기원하여 민간순례로 확산된 것이다. 또한 사자(死者) 공양을 위한 순례는 물론,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아이치 현이나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12지나 7복신 등 기록을 위한 민간신앙 순례들도 있다.

7가지 복을 가져다주는 에비수(惠比須), 다이코쿠텐(大黒天), 비사몬텐(毘沙門天), 벤자이텐(辯才天), 후쿠로쿠주(福祿壽), 주로진(壽老人), 호테(布袋)의 7복신은 수천 만 명이 참가하는 사찰이나 신사의 정월 초 하츠모우데(初詣)에서 다양한 부적과 점복으로 미래의 운명을 관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상의 신앙이자 생활종교인 일본의 순례 문화는 근세 이후에는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특히 전환기에 두각을 나타낸다. 순례행이 일어난 에도(江戸) 시대 17세기 후반에서

성지와 순례로
치료·치유 기능

19세기 전반 기에는 안정된 종교사회적 정신상황을, 메이지(明治) 유신

을 거친 20세기 초에는 종교성의 재정립을, 전후(戰後)에서 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현대인의 정신적 갈등과 종교적 심성의 부활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올수록 사회구조의 고착에 의한 폐쇄된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정신적 탈출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순례행은 그 고단함을 무릅쓰고 인간성의 시원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이자 이성으로 무장된 육체와 정신의 해방을 물론 치료와 치유의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쉽게 건너기엔 너무 크고 깊었던 대하(大河) 팔만대장경!

쉽게 읽는 팔만대장경

2011 최신간/ 유종문 편/ 양장본/ 전2권(1권: 대승삼장·소승삼장 편, 2권: 보유장경·팔만대장경해제 편)/ 총1,740여쪽/

출간호보 직판보급가 79,000원 [정가 96,000원(각권 48,000원)]

쉽고 아담한 단장으로 마침내 대중 속에 부활!

방대한 기존 출판본들을 총체적으로 비교·분석·고찰, 장단점을 살리고 보완해 8만4천 법보에 녹아 있는 무궁의 지혜와 이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면밀히 정제하고 풀어 불멸의 정신 팔만대장경의 경이로움을 흠결 없이 쉽게 섭렵토록 재연해냄으로써 생활 속 성장과 깨우침을 촉발케한 우리시대에 얻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역작!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1537개의 경을 전부 수록하였고,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 독자들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법학 스님(적조사 주지)-

전화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후 송금하시면 됨. 알리인, 인터넷에서도 판매 중. 주문: T.02-2618-0700, 070-8811-5775

각 집안내력을 한눈에!! 한국성씨족보

현존하는 총 259성(姓)과 1,000여 본관별 시조 및 유래, 세계(世系), 항렬, 인구분포, 인물, 유적 등에 이르는 열연 인맥사 전반을 한글체계를 병행하여 개정·보완 집대성, 나와 우리 정체성의 열연적 근거는 물론 장구한 씨줄 날줄상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 민족 성씨대백과 완결판!

한국성씨족보편찬위원회(위원장 염남섭)와 편집·감수위원 400여명/ 4×6배판/ 전2권/ 총2,400여쪽/ 직판보급가 15만원(정가 25만원)

익생양술(益生養術)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 나왔다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2007.07.10-
MBC TV 9시 뉴스데스크 (2007.09.21)

주요 신문 / 방송사 특집보도!
KBS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2007.10.16)
MBC 뉴스데스크 (2007.09.21)

1,000여종 약용 동식물의 생태 및 약리적 특성, 사용방법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업선된 2만여 가지 전통요법 및 각종 양생법(주침(灸)요법, 탕전요법, 약차요법, 식이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총집대성,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년 지혜와 연구노력의 집약판이자 각종 치료법 및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저(大著). 전4권[1권: 약초 편, 2권(상·하): 처방 편, 3권: 조제 편/ 권역세 편저/ 5×7배판/ 총3,800쪽/ 나무 케이스/ 잔여본 할인공급 55만원(정가 100만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 설치 용이

원터치 고려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용(공당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